

Yeosu Web Contents

2024년 04월 26일 12시 14분



목차

목차	2
관기3리	3
마을유래(□□)	3
지명유래(□□□□)	3
남해촌(□□□)	3
산양골(□□□)	3

대포1리	대포2리	대포3리	대포4리	덕양1리
덕양2리	덕양3리	덕양4리	덕양5리	덕양6리
관기1리	관기2리	관기3리	복산1리	복산2리
복산3리	복산4리	복산5리	복산6리	봉두1리
봉두2리	봉두3리	사곡1리	사곡2리	사곡3리
사곡4리	죽림(1~17리)	현천1리	현천2리	현천3리

마을유래(☒☒)

이 마을이 형성된 연대는 잘 알 수 없지만 고흥신씨(☒☒☒☒) 14대손인 신사문(☒☒☒)이 광양(☒☒)땅에서 살다가 가족을 데리고 이 마을로 이주해와 제일 먼저 터를 잡았다고한다.그 다음으로 영양천씨(☒☒☒☒), 김해김씨(☒☒☒☒) 등 여러성씨들이 계속 이주해와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지명유래(☒☒☒☒)

전해은 바에 의하면 옛날 화양면 일대가 나라에서 말을 키우는 목장(☒☒)이었고 이를 관리하는 감목관(☒☒☒)이 화동리에 있었기 때문에 목관의 관원(☒☒)들이 자주 순천부(☒☒☒)로 드나들었다.그런데 이들 관원들이 순천부로 내왕하려면 반드시 이 마을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관원들의 출입이 자자한 땅이라는 의미에서 벼슬관(☒)자와 터기(☒)자를 부쳐 관기(☒☒)란 지명이 붙었다고 한다.

그런데 일제때인 1914. 4. 1 전국 행정구역을 대폭개편하면서 집관(☒)자와 터기(☒)자를 써서 관기(☒☒)로 마을 이름이 바뀌진 것이다.

남해촌(☒☒☒)

이 마을에서 가사리로 가는 도로를 따라 500m쯤 내려가면 남해촌이라는 10여호 가량되는 마을이 나온다. 관기 간척지가 조성되자 고뢰농장에서는 경남 남해(☒☒)에서 소작인을 모집해 왔는데 그때 박보근(☒☒☒) 일가를 비롯해서 10여가구가 남해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 마을을 남해촌(☒☒☒)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7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남해에서 온 사람은 박보근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인근에서 온 사람들이어서 시대의 변천을 느끼게 한다.

산양골(☒☒☒)

하관마을에 속하고는 있지만 바로 죽림 저수지 밑에 산양골(☒☒☒)이라는 외딴 마을이 있다. 이 마을은 김秉순(☒☒☒)이 원래 화양면 이목리에 살다가 관기 간척지 땅을 짓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 산양골이란 지명은 산밑에 있는 양지 바른곳이란 뜻이다. 그런데 1960년대 한창 농사가 세월에 있을 때는 모두 7호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4호 밖에 남아있지 않다.

COPYRIGHT © YEOSU-CITY. ALL RIGHTS RESERVED.

(<http://www.yeosu.go.kr>)

Yeosu Web Contents

